

##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 발의 국회 빠른 입법처리로,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4월 27일,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발의

정치권 입김 줄이고 전문가·현업단체·시청자 대표 25명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여야, 학계, 방송사 구성원들 주장해 온 공영방송사장 '시민추천제', '특별다수제'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4월 27일 기존의 공영방송 또는 관리감독기구의 이사제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설치를 뼈대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위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은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당론으로 추진된 만큼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KBS·MBC·EBS의 이사회는 각계 대표로 이루어진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전환된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지역성·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의 운영위원을 각각 25명 임명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국회가 8명(비교선단제 추천 1명 포함),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3명, 공영방송 3사 시청자위원회가 3명, 방송협회 2명, 종사자 대표가 2명을 추천하고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 직능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KBS·MBC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4명, EBS는 교육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부 선정 교육단체가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나 주체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상임 명예직인 운영위원 임기는 3년이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제정은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갖는다. 방송법 개정안은 시청자추천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운영위가 재적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도록 했다. 시청자추천위는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운영위에 임명제정을 요구하는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시청자추천위의 구성이나 운영 방안 등은 추후 각 방송사 운영위가 정해야 한다. 단,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사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일보한 대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이날 성명을 내려 "우리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사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적 독립을 완결할 최고의 '이상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의 방송과 언론으로 거듭나는 데, 이 법안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지난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열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방송독립과 언론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완성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이상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거리가 있다."며 "정치권 추천 관행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KBS와 MBC의 경우 사장 임명 주체가 각각 대통령, 운영위원에 반해 같은 공사 체제인 EBS는 방통위로 한 점에 대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정당이 지배하던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 지난 24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언론현업단체 대표들과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들간의 간담회

추천 관행에서 정치권 몫을 1/3 이하로 축소할 점 △학계, 시청자위원회, 지방의회 및 방송 관련 단체 추천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양당 독식 관행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거대 양당이 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개정안 처리로 실현하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은 "개정안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동안 민주당 박홍근안, 국민의힘 박성위안 한 점에 대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사장선임시 특별다수제'의 공통분모와 2016년 촛불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해 온 공영방송사장 임명과정

에 시민추천, 선출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첫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법안 개정으로 진정한 공영방송 독립과 언론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허위조작정보를 제재하고 반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결 의원도 포털 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가 추천·배열되는 것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 검색을 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안영숙 기자 cat1006@naver.com

## ‘진짜 전쟁터’는가지도 못하는 한국언론의 전쟁보도

‘우크라이나전쟁’ 현장취재 기자들 “여행금지국가취재제한 ‘여권법’ 개정해야”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 뒤 지상군을 동원해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지난 2년여 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해외취재에 소극적이었던 국내의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들은 이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대규모 취재진을 파견했다. 전쟁 초기 공중과 방송사, 뉴스전문채널, 종편방송사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등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전쟁을 피해 탈출하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취재해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들의 전쟁보도는 딱 여기까지였다. 우리 방송과 언론사 취재진은 우크라이나의 국경선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한 채, 인접국가의 국경지대에서 연일 비슷한 내용의 피난민 취재와, 외신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발신하는 전쟁보도에 의존해 뉴스를 전달해야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로는 들어가지 못하니 전쟁의 긴장감을 보여주기 위해 방탄조끼와 헬멧을 쓰고, 폴란드의 국경과 거리에서 스탠드업과 라이브중계에 집중하는 국내 방송과 언론인들에 대해 시청자들은 불만과 비아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렇게 방송사 취재진들이 대거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달려갔음에도, 진짜 전쟁취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전쟁터 아닌 안전지역에서 방탄조끼 입고 전쟁분위기 연출·현장기자들, 외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지극한 토로**

우리나라 여권법은 전쟁이나 재난, 재해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외교부의 허가 없이 이들 지역에 방문,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권법의 ‘예외적 여권 사용’ 조항은 여행금지국가라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업을 위해 해당 국가에 머물러야 하는 영주권자와 공익적 목적의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체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22일 전문이 감돌던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 세계 언론인들이 우크라이나 현장취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취재 요청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다 국내 여론과 언론인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3월 18일 언론인의 우크라이나 방문 제한을 일부 풀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국내방송사들의 취재진과 유럽특파원들은 이 조치를 통해 폴란드 국경지역과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리비우(Lviv) 지역이나 수도인 키이우(Kyiv)로 들어가 취재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외

교부가 입국허용한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선과는 먼 서남부 체르니우치주 지역(수도 키이우 기준 약 5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였고, 취재를 위한 체류기간도 단 2박3일로 한정했다.

BBC와 CNN, NYT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취재활동을 벌였던 폴란드 프세미실 지역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에 베이스캠프를 치른 뒤, 수도 키이우는 물론이고,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남부 도시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취재지역은 전쟁터와는 한참 떨어진 곳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우리 방송사 취재진과 한국 언론인들은 비싼 경비를 들여 전쟁취재를 와서도, ‘진짜 전쟁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생생하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외신보도에 의존해 전쟁리포트와 기사를 현지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현장취재를 다녀온 언론인들은 외교부가 전쟁 등 위험지역에서 한국언론의 취재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국내 시청자와 독자들, 다른 나라의 언론인들에게 비난과 비웃음을 받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문사나 통신사 사진기자들의 경우, 전세계 포토저널리스트들이 현장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지만, 외교부의 취재제한으로 우크라이나 내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어 현장취재를 애초에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저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취재 언론인 간담회’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취재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토로하며 우리 언론인들의 전쟁·위험지역 취재를 제한하는 현재의 여권법과 외교부의 제한적 취재허용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뉴스에 대해 커지는 한국 시민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언론의 취재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도 훼손당하고 있다며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5일에는 유럽주재한국특파원단이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취재제한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전쟁 등 위험지역 취재 위한 안전장비, 보험, 의료, 법률지원 시스템도 ‘구멍’**

국제 분쟁·전쟁·재난·재해 취재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전수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전보험가입, 취재가이드라인과 취재필수품목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2면에 계속)





제 103회 이 달의 영상 기자상 심사평

‘제주 지하수의 오염 문제, 몇 년간 천착한 영상기자의 노력 돋보여’

서태경 심사위원장

제 103회 이달의 영상 기자상은 보도 특집 부문에 JIBS 윤인수 기자가 출품한 “제주 지하수의 경고, 바다의 역습”이 수상하였습니다.

육상 오염 물질의 주요 이동 통로인 지하수가 구조주의 폭발적인 증식을 가져와, 제주 바다의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인간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드론과 수중 촬영 등 품을 많이 판 영상 취재였습니다. 수려한 영상에 더불어 감각적인 편집은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잘 그려 냈습니다. 또한 과학적 원인 분석을 CG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서 더욱 효과를 냈습니다.

특히 제주 바다가 황폐화 된 것은 기후 위기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해라는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수상작으로 선정하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심사위원들이 모두 공감했습니다. 오랫동안 제주 지하수 오염 문제를 천착한 윤인수 기자의 노력은 “제주 지하수의 경고, 바다의 역습”편을 통해 잘 보여 졌고, 보도 다큐의 수준도 한 단계 높이면서 보는 이들의 반성과 공감을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수작임에 분명합니다.

-신설 뉴스특종단독 부문 출품작 없고, '새로운시선' 부문 수상자



▲ 지난 3월 25일 첫 심사를 마친 2022 영상기자상 심사위원들. 왼쪽 상단부터 채영길 외대교수, 손영원 부산MBC센터장, 방세중 KBS부장, 조정영 SBS부장, 황상욱 MBC부장, 나준영 협회장(사무진행), 서태경 심사위원장,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이외문승재 연합뉴스TV 부국장은 업무로 인해 불참.

없어 아쉬워

올해 신설된 “뉴스 특종, 단독 부문”은 뉴스 영상 기자의 현장 취재 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만 단 한편의 출품작이 없어 심사위원들에서도 많이 아쉬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회원사들이 기존 뉴스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 뉴스를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신설한 “새로운 시선 부문”은 이번 출품작 중에서는 아쉽게도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관련 출품작이 있었지만 타 방송사들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역시 수상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전취재, 정치적 이슈 넘어 한 시대의역사의 기록물이 되어야

사실 지난 3월 20대 대선이란 큰 이슈가 있었고 이를 담은 출품작들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유세 과정에서의 취재는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영상 기자에게 놓칠 수 없는 취재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방송된 아이템들이 많이 출품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출품작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크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치 관련 뉴스들은 대부분 영상 풀 취재를 하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과거 타사들의 양해 하에 출품해서 수상하기도 했었던 사례도 종종 있으므로, 혹여 편파 방송 시비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현장에서 뛰는 영상 기자들의 운신의

폭이 점점 작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이나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고 큰 사건, 사고는 그 당시만 취재하고 빠지는 일회성, 단발성 취재보다 영상 기자로서 끝까지 쫓아, 하나의 역사의 기록물을 만드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심사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 방송사의 사정상 영상기자 한 개인이 그렇게 하기엔 많은 장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영상 기자가 뉴스의 소모품이 아니라 주체적인 위치가 되기 위해선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자주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해외 취재물의 경우 초상권이 거의 무시 되다시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국 언론의 국제취재 활성화 강조·새정부 여권법 개정으로 '진정성'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월 4일 열린 한국보도사전전에 참석해 “(우리 언론인들이) 국내문제만이 아니라 세계보도현장에 뛰어들어서, 중군기자로서 또, 해외의 많은 사회·경제·인권현장에 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철학이 담긴 작품을 선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의 바람처럼 국민들이 우리 시각과 취재진의 역량으로 생산한 국제뉴스 보도를 접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권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또, 한국 언론의 국제이슈 취재·보도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새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103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소감

3편의 지하수 다큐멘터리...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JIBS 제주방송 윤인수 기자

어릴 적 서귀포 비닷가, '단물'의 추억

어린 시절 고향을 기억하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간다. 서귀포, 나의 고향은 재미있는 것들로 넘쳐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었던 곳은 바로 해안가 '단물'이었다. 바닷가 바로 옆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마실 수 있을 만큼 아주 약간의 짠맛만 느껴지는 물, 마을 어르신들은 그 물을 '단물'이라고 불렀다. 물이 귀했던 제주에서 해안가에서 나오는 소금기 없는 민물은 말 그대로 '달콤'했다. 바닷물까지 데워져 버리는 한 여름, 바위틈에서 쏟아지는 '단물'은 놀랄 만큼 차가웠다. 한 겨울에는 따듯함까지 느껴졌다. 그 '단물'을 먹고 마시고,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였을 것이다.

환경과인간 위협하는 '질소(窒素nitrogen)' 오염된 제주의 지하수문제 찾아3년

그 '단물', 바로 지하수, 바위틈에서 지하수가 해안가에서 '기저유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투수성(透水性: transmissibility)이 높은 제주의 땅은 빗물을 그대로 지하로 함양(涵養)시켜 버렸다. '단물'이 나오는 해안가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마을이 만들어졌다. 물은 나와 가족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생명의 조건이었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부른다. 제주에서 사용하는 물의 98%는 지하수에서 나온다. 우리가 쓰는 물의 사실상 모든 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지하수의 소중함은 모르는 것 같다.

지난 3년간 3편이 제작된 지하수 특집 다큐멘터리는 이 지하수의 중요성과 위기 상황 등을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이나 알려졌던 사실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시각에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 특집 다큐멘터리들은 '제주 지하수의 경고'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다.

1편인 <제주 지하수 침묵의 경고>는 높은 작물 생산량 등 풍요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던 '질소'의 지하수 오염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수 오염의 '시간차' 문제, 하와이 바다 거북이를 통해 지하수 수질의 오염이 바다 생물에 치명적 일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으며 지하수 오염은 땅 속을 이동하며 시간차를 가지고 진행되는 만큼,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편인 <제주 지하수의 경고 균형이 무너진다>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저 지하수를 열화상 드론과 수중촬영을 통해 제주지역의 해저 지하수 유출(SGD) 모습을 촬영하고, 제주 지하수가 바다와 숨겨진 연결고리를 통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했다. 용천수의 수질을 분석해 발작물에 뿌리는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농약 성분 일부가 지

하수에서 검출되고 있다는 점, 지하수 오염이 단순히 먹는 물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국내 최초 외편조모류 '오스트레옵시스 라벤스(Ostreopsis cf. labens)' 확인

3편 <제주 지하수이 경고 바다의 역습>은 바다와 지하수의 관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주 바다의 변화가 지하수의 변화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적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면서 제주 지하수의 위기 상황을 전달했다.

바다로 나가는 용천수의 질산성 질소 농도 증가로 인한 제주 연안 구조류 대발생 실태를 첫 확인했으며 구조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외편조모류(鰓纖毛藻類: Dinophyta) '오스트레옵시스 오바타' (Ostreopsis cf. ovata)가 발견됐고 국내 미기록종인 '오스트레옵시스 라벤스(Ostreopsis cf. laben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제주 연안으로 유입된 오염 물질이 쉽게 정화되기 어렵고, 심지어 오염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제주 바다의 체류시간은 생각보다 길어 이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잃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JIBS 제주 지하수 경고 시리즈의 핵심은 지하수



보전이 단순히 구호로 그칠 상황이 아니라는 것과 지하수 보호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먹는 물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이 긴밀히 연결돼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변화만으로도 주변 생태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지하수 수질 문제는 단편적인 대책으로 해소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과 지하수 관리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주력했다. 이런 문제가 단순히 제주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의 '생명수' 취재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소중한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힘들지만 그래도 누군가 해야 할 일... 끝까지 머리를 짓고 싶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3편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응원해주고, 도와준 JIBS 제주방송 보도국 선배들과 같이 제작한 김동은기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제104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작품 공모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뉴스와 보도프로그램 중에서 투철한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도영상 발전에 공헌한 기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 컷 한 컷의 영상 속에 오늘을 역사로 담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기자정신과 영상전문가로서의 땀과 열정이 담긴 보도영상작품을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공모해 주세요.

■공모시상부분(정회원에만 한함)

▲뉴스특종단독부문 ▲지역뉴스특종단독부문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보도특집다큐부문 ▲멀티보도부문 ▲'새로운시선' 부문 ▲인권·노동보도부문 ▲국제·통일보도부문 ▲환경보도부문 ▲문화·스포츠보도부문

■출품대상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제출기간

2022년 5월 1일(일) ~ 5월 15일(일) 오후 6시까지(출품기간 및 시간 엄수)

■심사 : 2022년 5월 27일 (금) 오후 4시

■심사 결과 발표 : 2022년 5월 27일 (금) 오후 9시

■제출서류 및 방법, 유의사항은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tvnews.or.kr)

■문의 :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처(02)3219-6476



[20대 대선취재 영상기자 간담회]

“민주당-당과캠프 소통 ‘빠격’, 국민의힘-후보자와 캠페인 돈보이는데 성공”  
“1인미디어의 영향력 커진 취재환경의 변화를 체험한 선거”

간담회 일시: 4월 19일 오전  
장소:국회 소통관  
진행: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  
참석자: 최영구 MBN 기자(민주당 담당 · 1진),  
장재현 MBC 기자(국민의힘 담당 · 2진),  
문지웅 MBN 기자(국민의당 · 정의당 담당 · 3진),  
박주영 MBC 기자(민주당 담당 · 4진)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아래 나) : 영국의 <더 타임즈>가 한국 대선을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선거”라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거전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장 가까에서 지켜본 영상기자들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충평 부탁드립니다.

최영구 MBN 기자(아래 최) : 대선의 전 기간을 취재한 영상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영상 공보의 측면에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간 공보라인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 다. 유세 현장을 취재할 때 늘어난 1인미디어들 때문에 영상기자들이나 1인미디어들이나 제대로 취재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았 습니다. 취재질서와 안전을 지키며 취재에 참여한 이들이 안정적인 영상을 취재할 수 있도록 유세와 선거운동의 현장을 준비하면 좋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았 습니다. 당의 공보 쪽에 이에 대한 개선의 건을 전해도, 당 공보팀과 캠프 쪽 공보라 인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나 실수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과 캠프의 공보 담당자들은 1인미디어 들이 밀착 취재를 해야 후보와 유세현장 의 분위기가 지지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취재현장이 좀 더 질서 있게 조성되어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과 온라인 접속자들에게 안정되고 치분한 영상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면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후보의 좋은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현장의 취재환경을 후보와 선거 캠페인이 풀보일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장재현 MBC 기자(아래 장) : 2002년 노무현-이회창 대선, 2007년 정동영-이명박 대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취재였습니다. 이른바 ‘태거시 미디어’ 영향력이 감소하고, 1인미디어가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해서인지 당이나 캠프에서도 기성 미디어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재 환경이 과거에 비해 열악해진 게 사실이고, 그걸 체감한 대선이었습니 다.

1인미디어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전하는 정보는 많아졌지만, 각각 자신들의 시청자와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전달하면서 후보와 선거운동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지금의 선거 보도 형태나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과 방송, 1인미디어의 보도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TV토론 횟수를 늘려,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지웅 MBN 기자(아래 문) : 정의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의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기존 매체들의 보도량이 거대정당에 비해 적고, 선거유세 현장 또한 거대 양당의 규모와 기성 미디어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취재하는 입장에서 힘이 안 났습니 다. 국민의당은 초반에 유세 차량 사고가 있었고,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취재자를 잃은 모호한 신세가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첫 대선 취재였는데,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좋은 경험이었습니 다.

박주영 MBC 기자(아래 박)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대선 취재는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후보의 선거운동을 아예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존 방송사들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유튜브버들도 현장에 광장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공보팀이나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현장에 온 유튜브버들을 각 각의 취재자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영상기자들이 아직은 유튜브버들과 현장에서 어떻게 공존할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예전 대선 취재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포털을 통한 후보 경쟁이 유튜브라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그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프로 야구 한국시리즈 관람을 갔는데, 유료로 티켓팅을 하고 온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취재 가능한 구역과 취재 시간도 경기의 ‘특정 몇 이닝’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KBO의 취재 비표를 받아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브버들은 정식 취재 비표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같이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관람하러 온 관중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유튜브버들이 보다 질서 있게 현장에서 함께 취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윤 후보, 청중에게 전하는 메시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웠고, 기성정치인과 다른 프렌들리한 모습을 돋보여  
이 후보, 선거기간 내내 대통령후보로 발전하는 모습은 마치 한 인물의 훌륭한 성장드라마를 보는 듯.

많았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영상취재 풀(pool)단은 ‘협회 소속사와 그 회원으로만 구성하고 동일한 취재협력의 조건을 제공한다’는 원칙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대선취재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나: 취재 과정에서 본 후보들의 특징이 나,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나요

장:윤 후보는 유세 초반부터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는데,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완성도도 높아지더라고요. 유세 중반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프렌들리’한 점은 이재명 후보나 타 후보에 비해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당 관계자들과 얘기하다가 자기 생각과 안 맞거나 의견이 틀어지면 라이브에 접히는데도 불쾌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데, 이 점이 기성 정치인하고는 다른 스타일이라 지지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최: 이재명 후보는 유세가 끝나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할 땐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었는데, 영상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좀 더 편하고 친근하게 대해서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이재명 후보를 경선 때부터 취재했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후보도 점점 성공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미지 메이킹도 다양하게 시도했는데, 머리색을 예로들면 처음엔 흰색이었다가 후보가 된 뒤엔 검정색으로 바꿨고 선거운동 중간에 회색으로 바뀌는 등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경선에서 이겨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만해도 현장에서 느낀 이 후보는 ‘사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올라가고 현장에서 대중들이 보내주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윤 후보처럼 세리머니를 하는 것은 아니어도 올라와서 손 흔들고 유세 현장을 누비는 모습이 마치 록스타와

같았습니다. 한 인물의 성장드라마를 보듯이, 한 명의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를 받은 대선후보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문: 시장에 가면 안철수 후보는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립니다. 상인들의 가게에 방문해 떡을 사먹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기다리고 있으면 30분이 지나도 안 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걸음걸이가 경쾌하고 빨라서 취재하는 우리가 천천히 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두 후보 사이를 오가며 선거운동을 취재하고, 두 후보의 면모를 알아가는 것은 바쁜 선거취재의 또 다른 재미였습니다.

장: 시장취재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과거 선거에서도 시장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 다.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후보 입장에서선 유권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겠지만, 뉴스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도 다음 대선 때는 뉴스가치에 중점을 두고 취재하는 방법을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일일이 시장유세를 커버하진 않지만, 이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나: 각자생각하는 선거의 방향을 기본 결정적 순간이나 승패를 기른 장면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장: 지난 3월 3일 새벽 3시쯤 단일화 속보가 퍼져 아침 일찍 기자실로 달려왔습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윤-안 단일화’는 선거의 방향을 결정짓는 ‘타당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격차를 많이 줄여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일화가 그 기세를 추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단일화를 선언한 날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기간’이 었습니다. 분명히 정치적 타이밍을 꼼꼼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초반에 지지율이 벌어져 있을 땐 윤석열 후보가 정책을 내놓고 하다가, 격차가 좁아드니 상대 후보와 현 정부를 비방하면서 조조함을 드러내는 것이 보였습니 다. 하지만 단일화 이후 후보의 발언 수위가 조절되기 시작했고, 여율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선거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대선 정보 늘었지만, 지지자 중심 정보 생산 문제  
“영상전문가인 현장 영상기자들의 새로운 취재질서 개선 고민해야”

최: 대중 유세현장에서 윤 후보가 청중에게 하는 말들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귀에 잘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순화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같이 훌륭하고 역량 있는 정치인이 대중적 지지를 못 받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대중을 향한 말의 명료함과 메시지의 정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도 훌륭한 철학과 지식, 논리를 갖고 있었지만, 이런 면에선 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번 대선을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나 팩트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스스로를 평가해봤으면 합니다

장: 유세 현장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다 보니 후보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긴 어렵습니다. 현장기자인 영상기자 입

장에서 볼 때 유권자들이 현장에 많이 모이는 것보다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정견과 정책에 대한 정보와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스케치나 부가성 취재도 좋지만 후보의 공약을 더 알려주고,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권자가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보다 TV토론 횟수가 늘어나야 하고, 군소 후보들에 대한 토론도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이 모두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유권자들이 당의 규모를 떠나 대선후보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 영상기자는 당장 쓰이지는 않더라도 언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꼼꼼하게 기록하고 취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기록한 기록물의 내용과 분량에 비해 너무 많은 것들이 선거캠프 쪽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만 소비되고, 빠르게 사라지는 콘텐츠로 전락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보도가 질적으로, 또 가치중립적으로 완성도 있게 나가기 위해 영상기자를 비롯해 취재기자과 데스크들도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 지난 3월 ‘이들의영상기자상’ 시상에서 ‘대선기간 중에 취재, 보도한 작품이 전혀 출품 되지 않아 놀랐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획을 하고 기존 취재물을 재가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국회같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뉴스가 넘쳐나고 풀치제로 돌아가는 특수한 환경에서 새로운 영상기획과 제작을 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박: 취재된 영상을 재가공하는 것은 기획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커버하는 취재팀과 기획을 고민하는 취재팀이 함께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취재가 제한되고 영상이 매일 비수할 수밖에 없는 대선취재 환경에선 이런 협업이 기획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나: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선을 비롯한 선거 취재·보도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 다음 대선 때 국회 풀단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엔 편성 시간이 조금씩 다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때문에 종일 편성에 가깝도록 하다 보니 각 풀터 간의 입장이 다르고 이견이 발생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선거 기간에 어떻게 풀 운영을 할 것인지 토론회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총선은 쉽지 않았지만, 다음 대선 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문: 소수정당에 대한 선거보도 비중이 적은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참거에 들어갔을 때나, 국민의당에서 유세 차량 사고가 있었을 때 같이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야만 소수정당이 주목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취재현장에서 ‘이게 과연 보도가 될까?’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수정당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정책을 소개하는 보도가 좀 더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뉴스편집회의에 들어가 보면 ‘시청자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기자들의 입장에서 기사 가치를 정하다 보니, 기자들의 관심사 위주로 아이템이 선정되고 리포트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데스크나 부장들이 이런 부분을 잡아주지 않는 이상 이런 관행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한 리포트에 여야 후보를 보도할 경우 비슷한 분량을 다룬다는 기준이 있는데, 소수정당도 의무적으로 리포트를 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기간 작은 것들이 계속되는 정책과 비전, 후보의 활동을 시청자와 유권자들이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에 비해 취재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업로더(uploaders), 유튜브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신 환경이 발달하면서 장비들 카메라에 연결해 송출시켜 온라인에 방송되고, 내가 찍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모니터링하다 보니 취재보다는 중계 카메라같은 느낌이 컸습니다.

나: 영상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박: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영상기로서의 직무와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영상기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이 달라집니다. 기술이 우리 마음대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되고, 극단적으로는 ‘당신들의 정체성은 뭐냐’는 질문에 봉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 이번에도 저널리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다 세워놓고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변화된 환경이 훨씬 더 크게 체감되는 상황이었습니 다. 변화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협회 차원에서 현장의 변화와 영상저널리즘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박: 대선 영상취재의 기본이 된 기계적 풀(pool)이 아니라 채널 성격에 맞는 플랫폼이나 운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널 성격이나 이벤트에 따라 플랫폼에서의 변화를 두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풀 운영에 대한논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위해 분과를 꾸릴 예정인데,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힘든 대선레이스를 기록하고 보도하느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진행=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  
정리=안영숙 기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전쟁의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은 외신들이 찍어주는 걸 쓰고 우린 안전하게 취재하지는 생각들이 보도 책임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PD : 분쟁 취재건 전쟁 취재건 전쟁의 핵심 지역을 취재해야 하는데, 전쟁의 주변만을 도니까 한국언론의 전쟁취재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이 들어간 체르니우치는 우크라이나를 취재하는 외신과 그것을 보는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는 뉴스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 들어가 있는 외신들은 단독방을 만들고 열리언스(전략적 연합체)를 만들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연대와 정보공유, 소통을 통해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취재하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외곽에서만 취재하면 시청자와 독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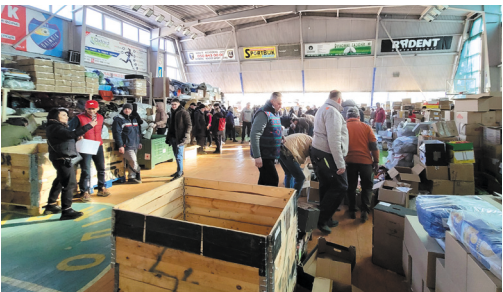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양국 모두의 선전전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현장에선 진위 판별이 안 되고, 외곽에서 전언을 통해 생산되는 기사는 전쟁의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취재할 수 있는 난민들에 대한 온정적 기사들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우리 언론을 통해 보는 것은 난민들의 불쌍함 외엔 선전전이 만든 곡곡을 통해 전쟁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가 우리 언론인들을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지금의 '취재제한시스템'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 : 현장 취재 중 · 후반으로 가면서 외신을 못나터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Bucha)에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을 때 외신이 취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 많은 외신기자들이 부차에 들어가서 라인을 치고 취재를 하고 있더군요. 전 세계 외신들과 로컬 언론들은 다들 들어가서 취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끼지 못하나 하는 생각에 기자로서 민망했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그들처럼 우리나라의 언론인들도 안전을 확보하면서 취재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우린 왜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제한철폐를 위해 노력한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없었는지 아쉬웠습니다.

나 : 외교부가 전쟁지역의 취재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니

김PD : 대한민국헌법은 언론인의 취재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외교부가 취재를 '허가한다'는 말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 취재를 허가받기 위해 취재의 내용, 이동 경로를 다 적으라는 것은 취재진을 다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동을 금지하는 현행 여권법은 언론인 취재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여행금지국가를 취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인에 한해서는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취재일국을 사전허가가 아니라 사후 신고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의 경우 '고려인'이라는 우리 사회와 밀접한 이슈도 있습니다. 취재를 하며 연락하고 있는 고려인 출신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가 있는데,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한국 기자가 없다면서 '왜



우크라이나에 한국취재진은 취재오지 않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우리 여권법을 얘기하며 상황을 이야기 하니,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한국 정부가 결정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의 국제이슈 취재를 가로 막는 여권법은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임 : 외교부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목적이고, 기자도 국민 중 하나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인데, 기자는 국민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특수성과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PD :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추진하며 외교부 허가를 받으려 했더니, NSC가 소집돼야 하고 그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현지 취재계획, 만일 사람들, 속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 다. 한때 폴란드 국경지역에서 '나 체르니우치 갈 거야.'라는 한국기자들의 말이 외신기자들 사이에서 '취재는 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취재하는 척 하려고 한다.'는 조롱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 :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한창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나 기타도시에 먼저 들어가 취재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 : 맞습니다. 일본은 TBS가 미리 기획해서 전쟁이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 현지인들이 빠져나올 때 같

이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에게도 그런 사전취재 기획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김 : 우리 국민들은 국제뉴스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리 언론이 전하지 않은 국제뉴스를 자발적으로 검색하고 찾아보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언론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 언론이 이 전쟁의 발발 전부터 키이우에 들어가 있었다면 생생한 증언과 화면으로 국제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는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 국제뉴스에서 현장 취재를 하는 건 우리 시각으로 이슈를 전달하자는 건데, KBS와 뉴스전문채널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방송사엔 국제뉴스나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조 : 우리나라는 정치 뉴스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 정치 뉴스 편중에서 벗어나 글로벌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 : 우리 방송사들이 국제문제를 취재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국제뉴스를 다룰 때 국제 정세, 지정학적인 관계 등 여러 고민들 속에서 우리의 시각을 담은 뉴스를 보도해야 합니다.

김 :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가 막히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취재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가까이서 취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인근의 또 다른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에 들어가려고 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으로 들어가 보자고 해서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위치한 몰도바(Moldova)에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를 섭외해 이 지역에 들어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가능했던 건 데스크가 현지 취재팀을 믿고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입니다. 심층취재를 하려면 데스크가 그만큼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환경이 바뀌다 보니 매일 뿔 하라는 요구는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뉴스의 깊이는 낮아집니다. 이런 방식의 취재가 국내는 물론 국제 취재를 망라하여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양은 적더라도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뉴스가 취재되어 보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터는 가보지도 못하고 매일 전쟁의 상황을 전하는 라이브를 요구하면 기자들은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줄 수 없고, 그런 보도는 서울에서 하나, 폴란드에서 하나 다들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 : 오늘 이야기한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의 경험을 통해 공감대가 생겼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을 위한 목소리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4일 열린 한국보도사진전에 참석해 "(우리 언론인들이) 국내문제만 아니라 세계보도현장에 뛰어들어서 중견기자로서 또, 해외의 많은 사회·경제·인권현장에 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철학이 담긴 작품을 선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우리 시각과 역량을 갖춘 우리만의 국제뉴스 보도를 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이슈의 취재 · 보도 관행들이 개선되고, 빠른 시간 안에 여권법이 막고 있는 전쟁 · 위험지역 취재 제한 조치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대담=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  
정리=안영숙 기자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폴란드 국경지역 취재기

## 전쟁 속에서 꿈꾼 자유와 평화(2022.2.17.~3.13)

SBS 영상취재팀 김학모

엇갈린 전쟁예측, 다시 역사의현장 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임박해지면서 위험지역 출장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났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국경지역 요르단과 쿠웨이트에서 취재경험이 있는 나는 순간 솔깃했다. 가장 먼저 지원을 했고 폴란드 국경지역 취재가 결정됐다. 비록 인접 국가 국경지역에서 시작된 출장이지만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처참한 실상을 영상에 담아내고 싶었다. 폴란드로 출장지역이 정해졌고 2월 17일 폴란드 바르샤바(Warsaw)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바르샤바 공항 입국은 코로나 상황이라 더 까다로웠고 2시간의 입국심사를 마친 후 국경 마을 프세미실(Przemysl)에 도착했다.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든 라이브가 가능한 시대에 이번에도 MNG(Mobile News Gathering) 통신장비 하나 믿고 잘 타지지만을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밤새워 안 타지는 장비와 씨름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었지만 막상 폴란드 메디카(Medyka) 국경 검문소에 접근하자 통신 상태가 엉망이었다. 국경 검문소 부근에는 간간히 우크라이나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러 넘어온 사람들과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위한 화물차들이 줄 지어 서 있었다. 아직 전쟁의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전쟁에 앞선 취재전쟁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우리 팀의 하루 일과는 더 바빠지기 시작했다. 라이브연결은 물론 제작까지 하루 24시간 모자랄 정도로 뛰어나다. 아 이템을 찾아 하루 500KM를 왕복한 적도 있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다음 날 새벽까지 24시간 일한 적도 있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어쩔 수 없는 취재경쟁은 계속됐고 서로 파듯한 인사 한마디 나누기 힘든 시간 속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었다. 국경지역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 우리가 주로 취재한 지역은 폴란드 메디카(Medyka) 국경검문소 부근이다. 가장 많은 피란민들이 넘어왔고 대부분 취재진들이 이곳에서 난민들을 취재했다. 전쟁 초기에는 취재 여건이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해져 접근이 어려웠다. 통신환경 또한 좋지 않아 라이브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일부 방송사가 사전녹화를 하거나 연결 중 끊김 현상을 감수하고 방송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란민 숫자는 늘어났고 식량한 국경지역에서 벗어나 프세미실 중앙역으로 들어오는 피란민 열차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밀려드는 피란민들로 곳곳에 대피소가 세워졌고 이따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온 엄마들의 표정엔 힘겨움과 불안감이 묻어났다.

전쟁이 시작되고 막막한 앞날을 걱정하는 우크라이나인들

우리가 취재한 우크라이나인들 대부분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막막해 하며 눈물을 보였고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취재하는 내내 우물렀다. 우크라이나가 아닌 국경지역에서의 취재는 한계가 있었다. 전쟁 상황을 보여줄 수 없으



니 국경지역 분위기를 담아내야 했다. 폴란드에 상주해 있는 미군기지 움직임을 포착했고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는 한국인 취재에 열을 올렸다. 아이템이 고갈될 무렵부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외교부에서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루마니아로 파견된 후방팀은 한국대사관이 있는 체르니우치(Tschernowiz)지역까지 이틀간의 취재를 하려해주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삼각지대에서 담아낸 전쟁의 현장

대부분 취재진이 4년~15년 차 안팎의 취재경험이 있는 기자들로 파견되었고 우리 팀만 22년~25년 차로 구성된 가장 나이도 연차도 많은 팀이었다. 회사에서 루마니아로 또 다른 취재진을 보내면서 잠시 여유가 생겼지만 폴란드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짜내야 하는 상황. 우린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언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 삼각지대를 찾아 왕복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헤맸고 결국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상상보다 더 무거운 공포가 느껴지는 지역에서 해질 무렵 아들이 밀려오는 짧은 시간 동안 현장의 분위기를 서둘러 카메라에 담아냈다. 국경수비대가 촬영을 막아 더 이상의 취재는 어려웠지만 힘겹게 담아낸 영상을 잘 지켜서 전쟁의 공포로 물든 이곳의 실상을 국내 언론 최초로 보도할 수 있었다.

평화의 빛을 찾아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암흑에서 벗어나 평화의 빛을 보고 싶었다. 긴 시간 취재를 하며 찾아 헤맨 평화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25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 러시아 하늘길이 막혀 비행기는 결항 되고 기나긴 하루를 견뎌야 하는 다음 날 귀국할 수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순간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 5.18

## 1980-2022

### 5.18민주화운동 42주년

# 5.18언론상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980년 신군부의 철저한 언론통제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헌신한 언론인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억하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5·18언론상을 공모합니다.

5·18진상규명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1. 모집대상

▶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도·영상물·뉴미디어 콘텐츠  
- 2021.7.1.~2022.6.30. 보도·방송·제작분에 한정

### 2. 지원자격

▶ 국내·외 언론인 및 단체  
▶ 일반 시민(뉴미디어 콘텐츠 부문)

### 3. 시상부문 및 상금

▶ 취재보도	2팀	각 3백 만원
▶ 사진·영상·다큐멘터리	1팀	3백 만원
▶ 뉴미디어 콘텐츠	1팀	3백 만원
▶ 공로상(심사위원회 추천)	1팀	3백 만원

### 4. 접수 안내

▶ 기간: 2022. 6. 7.(화) ~ 7. 11.(월)  
※ 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이메일 및 우편)  
- 이메일: kwangjupress@naver.com  
- 우편: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구동, 광주문화재단 별관아트스페이스5층)  
광주전남기자협회 사무국 (062-236-3316)

### 5. 제출서류

▶ 제작 설명서 및 보도물 콘텐츠 목록 1부  
▶ 이력서 1부(출품자별)  
▶ 뉴미디어 콘텐츠 부문 참가 신청서 1부(해당시)  
※ 시민 참가자는 제작 설명서 및 이력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자료 1식  
※ www.518.org

### 6. 심사기준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 발굴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비전 제시  
▶ 심사항목: 심층성, 참신성, 완성도, 방향성 등

### 7. 결과발표 및 시상

▶ 2022. 8.(별도 공지 예정)

### 8. 수상작품 활용

▶ 5·18기념사업, 교육, 언론상 홍보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9. 문의

▶ 5·18기념재단 교육문화부 최경훈(062-360-0532)  
▶ 광주전남기자협회 사무국(062-236-3316)



# 2022 힌즈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 공식 출범

제2회 국제공모 성공을 위한 공식기자회견 5월 12일 광주개최  
6월 공모 시작, 10월27일 광주에서 시상식 등 주요 일정 확정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제정한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상을 앞두고 국제 공모에 들어간다.

두 단체는 지난 4월15일 '2022 힌즈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정동년-나준영)'를 공식 출범시켰다. 조직위는 우선 5월12일 광주 5.18기념재단에서 힌즈페터국제보도상 공모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은 5월12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회 대회 공식홍보물과 공모 정보들을 공개한다. 그리고 오는 6월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hinzpeterawards.com/)를 통해 국제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출품 대상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된 뉴스와 특집분야의 영상 보도물이다.

공모 마감은 오는 7월 17일 국제표준시(GMT) 24시까지이다. 출품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9월 1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출수 해는 서울에서, 짝수 해는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한 데 따라, 올해는 작년 행사일과 같은 날인 10월 27일(목)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은 위르겐 힌즈페터 영상기자의 정신을 본받아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진전을



위해 싸우는 현장에서 역사의 기록자로서 진실을 알리고자 분투하는 전 세계 영상기자들을 찾아 시상한다. 상은 최우수상인 '기रो에 선 세계상'을 포함해 뉴스, 기획·다큐 등 3개의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 공모상인 '오월광주상'을 수여한다.

지나해 '기रो에 선 세계상'은 벨

라루스의 불법 선거 과정을 취재·보도한 미하일 아르신스키가 수상했고,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잔혹한 폭력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한 '노만과 콜린'이 '뉴스 부문'을, 미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풀려든 이주자들의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을 영상으로 담은 브루노 페데레코 기자가 특집 부

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영상 보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오월광주상'은 1980년 5월 19일 광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을 처음으로 취재하고 보도한 유영길 영상기자에게 돌아갔다.

안영숙 기자 cat1006@naver.com

## 라이펜슈톨 주한독일대사, 협회와 5.18기념재단 초청간담회 개최

2022 힌즈페터 국제보도상 성공 위한 독일대사관의 협조, 지원 방안 논의



지난 4월 8일, 독일 대사관 관저에서 라이펜슈톨 주한독일대사의 초청으로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2022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을 준비하는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을 격려하고 자 마련되었다.

라이펜슈톨 대사는 간담회에서 "작년도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의 성과에 감동받았다."며 "이 상이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영상기자들을 비롯한 저널리스트들에게 큰 지지와 용기를 북돋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이 세계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가 진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영상기자협회 나준영 회장과 5·18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은 유영길 힌즈페터 기자가 5·18의 진실을 알리고,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업적과 기자 정신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했다. 라이펜슈톨 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힌즈페터 기자의



업적을 잊지 않고 이를 기념하고,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쟁취한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오늘날의 힌즈페터와 같은 활동을 하는 기자들을 격려하는 의미있는 상을 만들어 준 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과 독일 대사관 측은 독일 시민과 언론인들에게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을 널리 알리고, 이

상이 한국과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 협력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독일 언론인들이 국제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지원 방안들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 뒤늦게 폴란드 공항에서 열린 힌즈페터국제보도상 시상식

제1회 '기रो에 선 세계상' 수상자 미하일 아르신스키에게 트로피 전달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 오전 폴란드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제1회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의 대상인 '기रो에 선 세계상' 수상자인 벨라루스의 미하일 아르신스키 영상 기자에게 뒤늦게 현장시상식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장취재하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김영미 분쟁전문PD(다큐 앤 뉴스 코리아 대표 겸 힌즈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가 폴란드에 난민신분으로 체류하며 언론활동 중인 아르신스키 기자와 사전조율을 통해 공항에서 만나면서 뒤늦게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미하일 아르신스키는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1회 힌즈페터 국제보도상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난민신분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워 역사적인 첫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당시 시상식에서 아르신스키 기자에게 수여되는 '기रो에 선 세계상'은 벨라루스의 민주화를 소망하는 한국 체류 중인 벨라루스인들이 대리 수신했지만, 그동안 트로피는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상태였다.

미하일 아르신스키는 2020년 벨라루스 대선을 영상으로 취재해 온라인 중계를 하다 구속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후 그는 26년의 철류하며 언론활동 중인 아르신스키 기자와 사전조율을 통해 공항에서 만나면서 뒤늦게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대선이 끝난 이후, 이들 영상을 모아 2021년 봄 <Don't be afraid>라

는 보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벨라루스에서 추방된 언론인들이 폴란드에 설립한 Belsat-TV에서 방송했다.

미하일 아르신스키는 김영미 PD를 통해 "이 상을 주신 한국의 영상기자들과 저널리스트들,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힌즈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들은 이 상이 5.18광주민주화쟁 이후 한국사회와 시민들이 쟁취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성취들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신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시대의 힌즈페터를 찾아 지지하고 연대하자는 상의 제정취지가 현실에서 실현되었다며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광주민중화운동 당시 보도영상의 체계적 자료화와 영상기자활동 규명을 위한 세미나>

## 5.18기념주간, 협회, 5.18기념재단과 공동 개최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은 5.18기념주간 중인 5월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광주민중화운동 당시 보도영상의 체계적 자료화와 영상기자활동 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 5.18광주민중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뉴스와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고, 지난 해 제1회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의 공로상 부문인 '오월광주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 조사 과정에서 5.18당시 취재된 국내외 보도영상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당시 취재에 참여한 국내외 영상기자들의 활동과 증언 또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5.18을 입체적으로 규명할 또 다른 역사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이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5.18 관련 역사자료와 영상기자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게 넘겨주는 역사콘텐츠로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형석 KBS PD,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주제발표하고,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내놓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한국영상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 현업단체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던 방송과 정치의 종속 고리를 끊고, KBS, MBC, EBS가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일었던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1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사장을 제정,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하지만 KBS 이사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7대 4 구조로 임명해 왔다.

MBC와 EBS는 방통위가 이사진 9명을 모두 임명한다.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을 모두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다 보니 결국 대통령+집권여당 -> 방통위 -> 공영방송 이사로

>공영방송 사장'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고, 언론사 안팎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정필모 의원이 법안 개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이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명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깨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해 이사진과 사장 교체에 앞두고도 KBS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언론 장악 구태'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제도 개선에 모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이사진 선출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사 구성을 여야 7대 6 추천 비율로 구성하고 사장 추천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을 냈다. 제도 개선에

는 양당이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를 보였다.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싸고 각계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현업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전문가추천위원회 20명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5배수 추천 -> 동수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압축 추천 -> 임명(김종민 의원) △국회나 방통위가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각각 13명 추천하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정과성을 최소한한 중립적대 이사로 구성(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민주당의 발의로 그동안 관련 논의가 여야를 비롯한 언론계 안팎의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이견들만이 첨예하게 부각되어 공회전을 거듭했던 데서 벗어나 입법회의 길이 열렸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학계, 방송사업자와 언론유관단체들이 입을 모아 주장했던 특별다수제가 반영되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제정권을 시청자사장추천평가

위원회가 갖도록 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론현업단체는 4월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양대정당이 분점한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을 양당의 적대적 대립과 공생의 제물로 만들었던 기록권을 청산하고 묵은 갈등을 풀어낼 최적의 시간"이라며 4월 내 법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 과방위를 향해 "즉각 법안 심사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새정부 출범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설치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 부산의 모습 담은 사진 모아, 사진전 <부산에 가면> 개최

부산MBC 이윤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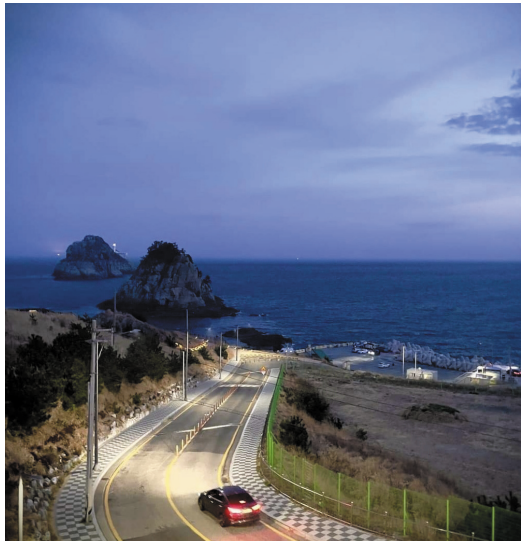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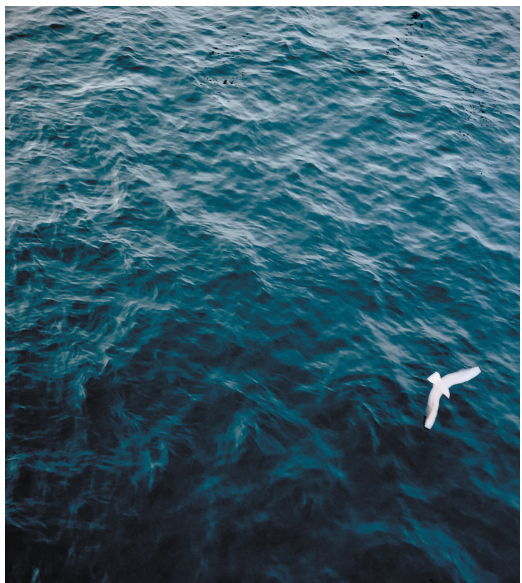


부산MBC 이윤성 영상기자가 부산의 이wel 갤러리(ewell gallery)의 초대를 받아 첫 개인 사진전을 열었다. 지난 2022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사진전의 제목은 <부산에 가면>: MY FAVORITE BUSAN

이윤성 기자는 지난 몇 년간 일상에서 만난 부산의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 그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부산의 진솔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핸드폰 사진으로 담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해 왔다. 그리고, 이 사진들 중 해운대와 광안리, 오륙도, 영도 등을 담은 스마트폰 사진 작품 60여점을 전시회에 선보였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스마트폰 사진에 매료되었다" "사진이 친근하고 색감이 아름답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기자는 "영상기자로 근무하면서 부산의 구석 구석을 취재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통한 사진 만들기 작업을 계속하면서 누구에게나 친숙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협회에 전했다.



## 국회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핵심 '운영위원회' 모델 된 독일식 공영방송 방송평의회란?

공영방송의 내적 다원주의 보장,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핵심인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의 모델로 삼은 것은 독일의 공영방송 방송평의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12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식 모델을 변형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미디어 분야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주로 해 25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9개 지방 공영방송사의 연합체인 제1방송(ARD)과 주정부간 합의에 의해 설립된 제2공영방송(ZDF)이 있다.

독일의 방송 관련 법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공영방송사는 방송사마다 설치된 방송평의회와 경영평의회가 사장 선출과 감독, 예산 등을 맡고, 민영방송사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방송법에 따라 주미디어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가 2017년 한국언론학회에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재구조화:독일과 한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비교'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공영방송사는 사별로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업무 권한을 갖는 '방송평의회'가 있다.

방송평의원 수는 사별로 적게는 17명에서 많게는 74명까지 방송사별로 다양한데, 제2공영방송인 ZDF는 60명이다.

ZDF 방송평의회는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에서 직접 선출하여 16개 총리들이 지명하는 형태다. 16명은 주별로 선임하고, 2명은 연방정부, 2명은 개신교회, 2명은 가톨릭교회, 1명은 유대인중앙협의회, 21명은 시민사회와 직능별 대표들로 구성한다. 그밖에 16명을 각 주들이 지명하지만 주 대표들과는 별개로 각기 다른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위원들이 다.

ZDF 방송평의회는 원래 77명이었다. 법으로는 현역 관료나 정치인이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됐지만, 현실은 각종 사회단체의 파견위원으로 주의원이나 연방위원이 지명되는 사례가 많아 정치권 위원이 44%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나마 경영평의회는 이러한 규정이 미흡해 보도국장 선임을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의회의 축소판

이라는 비판을 받는 방송평의회와 경영평의회 모두 정치인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위원의 수를 지금과 같은 60명으로 줄이고, 정치인 수도 두 평의회 모두 3분의1 이하로 줄였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 2022년 1월, 2월 협회원 인사동정

SBS 영상기자 채용전형: ▶접수기간: 4월4일(월)~4월24일(일)  
▶서류전형 결과 발표: 5월6일(금) 예정 ▶필기시험: 5월 14(토) 예정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기자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b>발행·편집인</b> 나준영 <b>편집위원</b> 정종배, 김경락, 김용민, 김재욱, 김준모, 김현기, 김현석, 김형수, 김희건, 박태범, 양재혁, 유충현, 이한범, 전상범, 양현철, 현세진, 황중원 <b>취재기자</b> 안경숙, 오주아 <b>행정</b> 허은지 <b>제작</b> 미디어이	
1999년 4월 23일 창간 2019년 8월 19일 등록번호 양천, 마00009(격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tvnews.or.kr 팩스 : 02 3219-6478 / 전화 : 02 3219-6476-7	
<b>한국영상기자협회</b> 우)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소기업 소상공인 복지혜택!

펼쳐라 노란우산

열려라 희망자산

휴양 시설 지원

영화·가족사진 지원

건강 검진 혜택

경영·세무 상담

홍보대사 양지은

홍보대사 김준현

가임문의

1666-9988

www.8899.or.kr



## 2022 협회 연수 및 교육 계획

협회는 올 해도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교육을 기획, 준비하고 있다. 직무 관련 연수는 연차별,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되었다. 영상취재현장의 변화와 강화되는 취재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교육을 모든 연수에서 세미나, 토론편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교육은 기존 교육을 심화시키고, 취재현장의 최신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전년도 많은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시니어영상기자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퇴직 영상기자선배들과 창업,

재무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셔, 좀 더 구체적인 제2인생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노력을 함께하고 있는 지부장과 운영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를 통해 협회발전과 영상기자 위상강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UHD영상장비의 개발흐름과 취재 장비의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무선통신을 이용한 이동용 송출장비에 대한 다양한 현장 정보와 의견을 교류하는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 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연수, 교육은 다음과 같다.

연수명	연수 교육 내용
지부장 보직자 데스크 연수 (6월 중, 부산 또는 경남북지역 1박 2일, 25명 이내)	-영상보도가이드라인교육 -UHD시대, ENG의 미래 -무선송출장비의 변화흐름과 취재현장의 변화
운영위원 평가자 연수 (6월 중 제주 또는 호남지역, 1박2일, 25명 이내)	-영상보도가이드라인교육 -UHD시대, ENG의 미래 -무선송출장비의 변화흐름과 취재현장의 변화
시니어 영상기자 연수 (8/31~9/2, 서울, 20명 이내)	-인생설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제2인생 -영상기자의 경험으로 준비하는 인생 2모작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은퇴영상기자들과의 대화) -퇴직, 은퇴를 준비하는 맞춤형 재무설계
신입 주니어 기자 연수 (11월 초, 제주 또는 광주)	-어떻게 영상기자로 살 것인가? -선배 영상기자와 함께하는 멘토링 활동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교육 세미나 -참가자 친목활동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온라인교육 1차 (7월 초 50명~ 80명)	초상권, 공인취재, 재난재해, 전쟁 보도 등의 문제 세미나 토론식 교육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온라인교육 2차 (11월 초 50명~ 80명)	상 동
수중촬영 업그레이드 교육 (9월 하반기, 제주, 20명 이내)	-수중촬영 전문가교육 -중급촬영 업그레이드교육 -오픈워터 교육

## 역대 최악의 영덕 산불 현장을 취재하며

### 현장에서

박주원 포항MBC 영상기자

#### 거대한 산불의 화마 앞에 사람도 동물도 모두 아비규환

3월 4일, 동료 취재기자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울진에 산불이 났다는 소방본부 문자를 받았다. 곧이어 전화가 울리자마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밥을 신속히 입에 넣어 넣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회사로 출발했다. 회사가 있는 포항에서 울진 산불 현장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기 때문에 카메라와 LTE 장비, 조명, 안전모 등을 차에 싣고 바빠 출발했다.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뿌옇게 흐려지는 시야와 매캐한 냄새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 눈길에 닿는 모든 곳에 불이 붙어있었다. 앞집, 옆집, 뒷산 할 것 없이 모두 활활 타고 있었고, 길에 나와 있던 강아지들은 흰색 털이 모두 누렇게 그을려 누렁이가 되어있었다. 현실감이 들지 않아 마치 재난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새까맣게 타서 무너져 내린 집 앞에서 우시는 할머니를 인터뷰하면서 감히 위로조차 할 수 없었다. 사람도 동물도 현장은 모두 아비규환이었다.

현장에서 통신이 터지는 곳을 찾는 것도 문제였다. 이동 중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회사로 보내려는데 통신 신호가 안 잡히는 거다. 알고 보니 전선이 불에 타 일부 지역의 통신망이 마비가 된 것이었다. 나와 취재기자는 동시에 패닉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5시 뉴스 생중계 연결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장 차를 타고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 통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열악한 취재현장

#### 인력난 속 주120시간 근무를 짊어준 열악한 재해취재 근무상황

취재차량을 운전하는 오디오편은 엑셀을 세게 밟았고 앞에 앉은 취재기자는 휴대폰으로 통신 신호가 터지는지 확인했다. 뒤에 앉은 나는 MNC송출장비를 켜서 제발 신호가 들어오길 기도하며 거의 절규하고 있었다. 우리는 생방송 5분 전에 겨우 통신 신호가 터지는 현장에 자리를 잡았고 생중계 연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저녁 뉴스 연결 전 리포트 제작을 위해 급히 자리를 옮겼다. 주민 임시 대피소로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현장을 스케치해서 LTE 장비로 회사에 영상을 보냈다. 이후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와 타오르는 불길 앞에 기자를 세워두고 현장 연결을 했다. 그렇게 새벽 특보까지 마감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출발했다. 도로로 침범하는 불길을 뚫고 가면서 이 불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숙소에서 한 시간 정도 눈을 붙인 뒤 우리는 아침 뉴스 연결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시 현장으로 갔다.

영상기자들은 산불 취재기간 동안 적게는 주 80시간에서 많게는 주 120시간까지 근무를 했다. 인력난으로 인해 한 취재기자는 주 130시간 넘게 일하기도 했다. 오디오편들 또한 하루 종일 취재에 동행하고 왕복 다섯 시간 거리를 운전해야 했다.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 더딘 피해복구, 모자란 피해주민 지원금

#### 주민들 삶,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기로서 꾸준한 관심 전하려

우려처럼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산불은 열흘간 이어졌고 서울 면적 1/3의 산림이 불탔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진압된 뒤에도 취재는 이어졌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 숨이 빠진 전부터 농민들, 불에 타 죽은 동물들 등 현장을 다시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카메라로 담았다. 산불이 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



지만 피해복구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전파된 주택들에 대한 지원금이 최대 9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이재민들이 새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임시 조립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50여 세대의 주민들은 모텔이나 마을 회관을 전전

하고 있다. 산림이 복구되고 주민들의 삶이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영상기자로써 울진 현장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하겠다.



Incheon Airport